

PEOPLE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제31회 독서문화상

완도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완도군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31회 독서 문화상(독서문화진흥을 유공) 기관 부문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독서 문화상은 매년 독서 문화 진흥 활동과 독서 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군은 1읍면 1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과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 공간을 확대하고 문화 소외 지역에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민들이 독서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을 호평받았다.

군은 2014년 신지혜실적은도서관을 시작으로 금당, 소안, 생일, 약산, 남도, 군외, 보길, 고금, 완도읍 등 10개 도서관을 조성했고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광주도시공사, 한가위 송편 나눔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지난 23일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가위 송편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후,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하고 관계망 형성을 유도하여 사회적 고립 해소와 재취업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행사에는 초청 세대와 공사 임직원 등도 참석했으며, 행사 종료 후 참석자들은 서로 답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공사는 사전 준비한 강정 및 명절 음식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김승남 사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이웃과 정을 나누는 명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교류의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남부경찰 백운지구대

백운2동 자율방범대와 합동순찰

광주 남부경찰 백운지구대는 24일 백운2동 자율방범대와 함께 민·경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백운지구대는 자율방범대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및 노쇼 사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이후 백운동 푸른길 스트리트 푸드존과 백운브릿지 인근 여성안심귀가길 등 범죄 우려지역에서의 순찰을 통해 범죄예방활동에 나섰다.

백운지구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예방 활동과 민·경 치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와 합동순찰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KT, 독립유공자 후손 IT 교육 '주목'

청년 강사들 카페서 키오스크 주문 실습 등 지도

보훈부와 가족 50명 초청 히어로즈 데이 개최도

KT 전남전북광역본부는 24일 광주지방보훈청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및 가족 50여명을 초청해 '히어로즈 데이'를 개최했다.

'히어로즈 데이'는 KT가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국가유공자 예우 프로젝트다. IT교육 지원과 보훈 문화 확산을 결합한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는 대전과 대구, 부산에 이어 광주에서 열렸다.

행사에 앞서 KT는 3주간 광주 독립유공자 후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밀착된 IT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과 함께 실제 카페에서 키오스크 주문 실습을 진행했으며 KT의 청년 이사회 '블루보드'가 강사로 참여한 교육도 병행했다.

실제 카페에서 키오스크 실습을 체험한 독립유공자 후손 어르신은 "1주차 강의실 교육만으

로는 내가 혼자 결제를 할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실제로 카페에서 직접 주문을 해보니 자신감이 생겼다"며 "앞으로는 혼자서도 당당히 주문할 수 있을 것 같아 뿌듯하고 이렇게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KT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유공자 후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예우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과거 독립유공자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 또는 가족과 함께 찍은 흑백사진을 AI 기술로 복원해 상영하는 'AI로 만나는 그리운 당신' 영상은 행사장의 참여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또 오후에는 기억, 건강, 힐링, 웃음 등 네 가지 테마로 구성된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기억' 부스에서는 전문가의 헤어·메이크업 서비스와 기념 촬영이 제공되고, '건강' 부스에서는 난청



KT 전남전북광역본부는 24일 광주지방보훈청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및 가족 50여명을 초청해 '히어로즈 데이'를 개최했다.

검사와 맞춤형 청력 관리 상담이 진행됐다. 이 밖에도 신체 균형을 돕는 스크린 파크 골프,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 참석자들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더해주는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KT 전남전북광역본부 관계자는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선조들의 뜻을 이어가는 주인공들"이라며 "KT는 여러분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 많은 분들과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박문옥 도의원,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챌린지 동참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3)은 24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박람회는 남도의 깊은 그윽한 맛을 세계와 나누고, 미식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미식 박람회"라며 "전남 미식 산업의 새로운 가치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특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 미식산업이 세계로 뻗어가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챌린지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며, 박람회 성공 개최와 세계화 비전을 공유하는 범도민 캠페인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다음 주



로 전라남도의회 전경선의원을 지목하며 응원의 박동을 이어갔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평화광

장, 목포 원도심 일원에서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 세계 미식 산업 관계자와 관광객을 초청해 국제 교류와 미식 산업 융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구례군은 최근 3일 간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일원에서 '2025 구례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를 개최했다.

“사람과 자연 공존…흙 생명력 지켜나가겠다”

‘구례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성료…전국 유일 생태축제

구례군이 흙의 생명력을 지키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개최한 생태축제에 4000여명의 발길이 이어지는 등 성황을 이뤘다.

24일 구례군에 따르면 최근 3일 간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일원에서 '2025 구례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전라도와 구례군이 주최하고 탄소중립흙살리기박람회추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이개호 국회의원, 김순호 구례군수,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장길선 구례군의회의 의장을 비롯해 도·군의원, 관계 기관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원, 추미애·신정훈·권항엽·정을호 국회의원들은 현장을 찾지는 못했지만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 인사를 전하며 박람회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 기간 동안 4000여명이 참여해 구례의 흙 살리기와 탄소중립 의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탄소중립과 흙을 주제로 한 박람회로 올해 두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꾸며졌다.

개막식은 '흙을 살리고 지구를 구하는 구례'를 주제로 김형서 작곡가와 TBN 어린이합창단의 공연으로 막을 열었고, 이어 탄소중립 실천과 생태농업의 의지를 담은 선언문 발표와 주요 내빈의 개막 퍼포먼스가 진행돼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주제관에서는 흙이 생태계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중요성을 알기 쉽게 체험할 수 있었으며, 글로벌 시민과 함께한 토크쇼는 흙의 소중함과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다양한 시각에서 나누며 논의를 곁들였다.

또 구례 농특산물 홍보관에는 30여개의 생산· 가공 단체가 참여해 구례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렸고, 부대행사로 열린 청소년 AI캠프에서는 관내 초·중학생들이 코딩 체험에 참여해 흙과 자연을 최첨단 기술로 풀어냈다.

김순호 군수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온 지리산의 고장 구례군이 흙의 생명력을 지키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례군은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박람회를 대한민국 대표 생태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한전KDN은 최근 나주 본사 다목적실에서 '국정과제 추진 핵심성과 창출을 위한 리더워크숍'을 개최했다.

한전KDN, 국정과제 성과 창출 리더워크숍

한전KDN은 최근 나주 본사 다목적실에서 '국정과제 추진 핵심성과 창출을 위한 리더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조직 개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경영전략의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한 조직별 관리체계 마련을 목표로 진행됐다.

행사는 박상형 사장이 직접 주관했으며, 50여명의 주요 보직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5년 상반기 경영실적과 2035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결과를 공유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의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 RE100 산업단지 등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 초빙 강연도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인공지능(AI) △차세대 전력망 △RE100 산단 △분산에너지 등 핵심 국정과제의 실행 방안과 ESG 경영 실천을 통한 차별적 성과 창출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조직별로 산재한 성과를 종합 관리하고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도 공유됐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양상의, 포항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600만원 전달

회원사 임직원 20여곳 동참…자매도시 교차기부 확산

광양상공회의소는 최근 포항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교차기부금 56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우광일 광양상의 회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고객 기부에 참여한 황재우(㈜광양기업 회장, 교차기부관 나주영 포항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교차 기부는 지난해 우광일 광양상의 회장과 나주영 포항상의 회장이 각각 개인 한도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부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올해는 양 상의 회원사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됐다.

광양상의는 이날 20여개 회원사 임직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한 5600만원을 포항시에 전달했다.



포항상의는 오는 11월 10일 열리는 제4회 광양시 기업인의 날에 맞춰 광양시를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kkinj@



광주시선관위,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정치자금 회계사무 설명회.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광주 서구 치평동 5·18민주화운동 교육관에서 지방의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 및 정치자금 회계사무 설명회를 개최했다.